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 영향 요인 Completion and Related Factors of Advance Directives in old adults

김명숙*, 강문희**, 김연옥***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

Myung Sook Kim(msk533@howon.ac.kr)*, Moonhee Gang(mhgang@cnu.ac.kr)**,
Yeon-Ok Kim(kimok603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 작성의도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D 광역시에 거주하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196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2월 8일에서 12월 19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version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χ^2 -test, t-test,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 중 AD 작성 의도를 가진 경우는 58.2%였다. AD 작성의도에 따라 연령($\chi^2=4.92, p=.020$), 독거상태($\chi^2=4.72, p=.030$), 주관적 건강상태($\chi^2=3.97, p=.046$), AD에 대한 인식 ($t=-4.81, p<.001$) 및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t=2.01, p=.04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AD 작성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AD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OR=11.87, $p<.001$, 95% CI=3.52~39.94). 따라서 노인의 AD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AD 작성 의도의 주요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노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지식 | 인식 | 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mpletion and related factors on Advance Directives (AD) in olde adult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96 old adults, 65 and over aged in D metropolitan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 22.0 program. The rate of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was 58.2% in the participants. There were different age, Living alone, subjective health status, awareness toward AD, and negative attitude toward death by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In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redictors of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was awareness toward AD in old adult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that positive awareness toward AD can predict completion of AD of healthy old adults in community.

■ keyword : | Old Adult | Advance Directives | Knowledge | Awareness | Attitude |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의사를

* 본 연구는 책임저자가 2017년도 호원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연구임

접수일자 : 2017년 11월 01일

수정일자 : 2018년 0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22일

교신저자 : 강문희, e-mail : mhgang@cnu.ac.kr

평소 건강할 때에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1]. 이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행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2][3].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몇몇 나라에서 이미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다[3]. 한국은 경우 2016년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017년부터 8월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1]. 하지만 연명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AD 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인에 의한 연명중단 의사결정률은 38%로 의사나 보호자가 결정하는 경우 84% 보다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다[4][5]. 노인의 경우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 대신에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연명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노인 본인 보다는 주로 의료인과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7]. 인생에 대한 긍정적 통합을 이루는 시기의 노인에게 있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주요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D 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AD 작성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AD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AD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8],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 가치와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9], 지역사회노인의 건강상태와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구[10], 만성질환자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과 생애 말기 치료 선호도[2], 만성질환자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과 생애 말기 치료 선호도[3],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4], 일 종합병원에서의 사전의사결정서 적용[5], 호스피스병동 암환자 및 내과외과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인식[11] 등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암환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AD에 대한 인식, 선호도, 지식 등을 파악하는 연구였으며 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

로 AD 작성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몇몇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AD 작성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소득, 가족동거, 건강상태[10], 성별, 인종, 종교, 교육정도, AD에 대한 인식 [12], 죽음에 대한 태도[13], 결혼상태, 교육, AD에 대한 지식, 경험, 선호도[14]가 관련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수정이 불가능한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하면 AD에 대한 지식, 인식, 죽음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구학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AD 작성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결과[10-14]에서 AD 작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일반적 특성과 AD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죽음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AD 작성 의도 정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AD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작성 의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AD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AD 작성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한 경로당, 시니어클럽, 복지관 5개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를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자, 한글의 해독능력이 있거나 문맹일 경우 설문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해 양측검정, 노인을 대상으로 AD 작성 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14]에 근거하여 Odds ratio 1.7, $\alpha=.05$, 검정력 .80로 하였을 때 요구되는 표본 수는 총 184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196명으로 이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죽음에 대한 태도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가치와 신념 등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Kim 등[15]이 개발한 죽음에 대한 태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회피, 개방성, 수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3문항, 부정적 태도 3문항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인지기능이 낮은 노인에게 적용하기가 적합하다. 점수화는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또는 부정적 태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긍정적 태도가 Cronbach's $\alpha=.70$ 이고 부정적 태도는 Cronbach's $\alpha=.79$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각각 Cronbach's $\alpha=.70$ 이었다.

2.3.2 AD에 대한 지식

Hong과 Kim[16]이 개발한 AD에 대한 지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AD 문서 관련 지식 9문항으로 구성되며, '예', '아니오', '모른다'로 구성된 후, 오답과 모른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AD 관련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는 KR 21=.60였다.

2.3.3 AD에 대한 인식

Lee & Park[17]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AD 태도 도구(Advance Directives Attitude Survey, AD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치료선택의 기회, 사전의사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사전의사결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의 인식에 대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 4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AD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 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였다.

2.3.4 AD 작성의도

AD 작성에 대한 의도는 "귀하께서는 AD를 작성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다.

2.3.5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10][12][14]에 근거하여 AD작성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동거인, 교육수준, 종교,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H대학의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1585-201611-HR-005=01)을 받은 후 진행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12월 19일까지였으며, D광역시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건 의료 실무자를 통해 기관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허락을 받아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노인

7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은 후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사전연명의사결정에 대한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AD 용어를 설명 하고 설문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참여 노인들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과정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는 간호학과 4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와 연구윤리에 대해 사전 교육을 제공한 다음 실시하였다. 설문은 1:1 면접방식으로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죽음에 대한 태도, AD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작성 의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AD 작성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AD 작성의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AD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AD 작성의도 영향요인은 단변량 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투입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0.7%, 남자가 39.3%였으며, 연령은 80세 미만이 59.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39.3%는 독거 상태였고, 한글 해독이 어려운 대상자는 전체의 19.9%였다. 대상자의 75.0%는 종교가 있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한 경우가 75.5%,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6.3%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작성의도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평균 2.82 ± 0.44 , 부정적 태도는 평균 2.03 ± 0.51 로 긍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AD에 대한 지식 평균은 5.83 ± 1.90 점으로 평균 이상이었으며, AD에 대한 인식은 평균 2.85 ± 0.31 점으로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는 있는 경우가 114(58.2%), 없는 경우가 82(41.8)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77 (39.3)
	Female	119(60.7)
Age (year)	80>	116(59.2)
	80≤	80(40.8)
Living alone	Yes	77(39.3)
	No	119(60.7)
Education	Illiterate	39(19.9)
	Literate	157(80.1)
Religion	Yes	147(75.0)
	No	49(25.0)
Health status	Good	148(75.5)
	Bad	48(24.5)
Satisfaction of life	Satisfaction	130(66.3)
	Dissatisfaction	66(33.7)

Table 2. Study Variables of Participants (N=196)

Variables	Categories	n (%) / M±SD
Attitude toward Death	Positive	2.82±0.44
	Negative	2.03±0.51
Knowledge about AD		5.83±1.90
Awareness toward AD		2.85±0.31
Completion intention	Yes	114(58.2)
	No	82(41.8)

3.3 대상자의 AD 작성의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대상자의 AD작성의도에 따라 연령($\chi^2=4.92$, $p=.020$), 독거상태($\chi^2=4.72$, $p=.030$), 주관적 건강상태($\chi^2=3.97$, $p=.0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AD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차이

대상자의 AD 작성의도에 따라 AD에 대한 인식($t=-4.81, p<.001$)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t=2.01, p=.04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χ^2 (p)
		Yes (n=114)	No (n=82)	
		n (%)	n (%)	
Gender	Male	45(39.5)	32(39.0)	.00 (1.000)
	Female	69(60.5)	50(61.0)	
Age (year)	80)	75(65.8)	41(50.0)	4.92 (.020)
	80≤	39(34.2)	41(50.0)	
Living alone	Yes	35(30.8)	14(17.1)	4.72 (.030)
	No	79(69.2)	68(82.9)	
Education	Illiterate	20(17.5)	19(23.2)	.94 (.367)
	Literate	94(82.5)	63(76.8)	
Religion	Yes	86(75.4)	61(74.4)	.02 (.869)
	No	28(24.6)	21(25.6)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92(80.7)	56(68.3)	3.97 (.046)
	Bad	22(19.3)	26(31.7)	
Satisfaction of life	Yes	78(68.4)	52(63.4)	.02 (.989)
	No	36(31.6)	30(36.6)	

Table 4. Comparison of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N=196)

Characteristics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t (p)
	Yes (n=114)	No (n=82)	
	M±SD	M±SD	
Knowledge about AD	5.91±1.77	5.69±2.08	-.78 (.433)
Awareness toward AD	2.94±0.27	2.73±0.32	-4.81 ($<.001$)
Positive Attitude toward death	2.85±0.43	2.78±0.45	-1.23 (.218)
Negative Attitude toward death	1.94±0.49	2.08±0.49	2.01 (.045)

3.5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 영향 요인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

성(연령, 독거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AD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독립변수로, AD 작성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AD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OR=11.87, $p<.001$, 95% CI=3.52~39.94). 즉, AD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노인이 11.87 배 AD 작성 의도가 높았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mpletion Intention toward AD (N=196)

Variables	B	SE	p	OR	95% CI
Age	-0.61	0.32	.055	0.53	0.28~1.01
Living alone	-0.70	0.38	.068	0.49	0.23~1.05
Health status	-0.70	0.37	.061	0.49	0.23~1.03
Awareness toward AD	2.47	0.61	$<.001$	11.87	3.52~39.94
Negative attitude toward death	-0.44	0.32	.170	0.63	0.33~1.21

IV. 논의

본 연구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교적 건강한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AD 작성 의도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58.2%가 AD 작성 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AD 작성의도를 파악한 결과 57.2%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10]와 유사하였으나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54.0~55.2%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18][19]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태도보다 긍정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측정된 선행연구결과 [20]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75%가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66%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삶에 대한 긍정적 통합감을 성취한 결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AD에 대한 지식은 9점 만점에 평균 5.83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Seo[21]의 연구결과 5.70점과 유사하였으나 Hong과 Kim[16]의 연구결과 3.69점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AD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Seo[21]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41.8%에서는 작성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는 연령, 독거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80세 이상, 독거노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에서 AD 작성의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60-70세, 가족과 거주하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느끼는 노인에서 AD 작성 의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10]와 일치하였다. 한편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는 AD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D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노인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낮은 노인에서 AD 작성 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AD와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AD 작성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AD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AD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생의 말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받게 될 생의 말 치료로 인한 의료비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AD작성 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AD가 생애 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움 것이라는 노인의 인식이 AD 작성의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한 선행연구결과[12]와 유사하였다. 또한 AD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AD작성에 대한 선호도나 의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16]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60% 이상이 가족과 함

께 동거하는 노인으로 AD 작성 의도에 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의 AD 작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AD에 대한 지식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치료선택의 기회, 사전의사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사전의사결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에 대해 노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여 AD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AD 교육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AD 작성 의도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AD 작성의 유의한 관련요인임을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13]와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선행연구[13]의 대상은 외국의 성인과 노인인 반면에 본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문화적 차이와 죽음에 대한 태도 간에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AD 작성 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AD를 작성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AD 작성 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결과[22]에 따르면 대상자의 41.2%가 AD를 작성하였으며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AD에 대해 상의한 경우, 환자의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의 경우에서 AD 작성은 환자의 상태나 보호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과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AD 작성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출하여 자가 보고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노인으로 대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죽음에 대한 태도, AD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결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AD작성 의도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노인의 AD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823&efYd=20170804#0000>
- [2] S. Y. Yun, *The Preference for Care near the End of Life and Cognition towards Advance Directiv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Dong-A University, Korea, 2011.
- [3] E. S. Yun, *Knowledge, Experience, Attitudes and Preference toward Advance Directives among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Visiting the General Hospital*, Hanyang University, Korea, 2009.
- [4] D. S. Heo, "Patient Autonomy and Advance Directives in Korea," *Journal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52, No.9, pp.865-870, 2009.
- [5] K. S. Kim, *Application of Advance Directives at a General Hospital*, Hanyang University, Korea, 2009.
- [6] R. Schiff, C. Rajkumar, and C. Bulpitt, "Views of Elderly People on Living Wills: Interview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Vol.3, No.20, pp.1640-1641, 2000.
- [7] H. S. Kim, "Influence of Afterlife View Death Preparation Spiritual Well-being on Attitude of Death of the Old Ages," *Journal of Spirituality and Social Welfare*, Vol.3, No.1, pp.81-108, 2015.
- [8] J. W. Park and J. A. Song, "Knowledge Experience and Preference on Advance Directives among Community and Facil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3, No.3, pp.581-600, 2013.
- [9] J. S. Kim, "The Value in Quality of Life and Recognition and Preferences for Advance Directives by the Elderly's Ag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2, No.1, pp.1-23, 2012.
- [10] H. J. Pyun, *Health Status, Advanced Directives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012.
- [11] D. S. Sun, *The Recognition towards Advance Directives in Hospice Cancer Patients and Medical Doctor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8.
- [12] G. J. Alano, R. Pekmezaris, J. Y. Tai, M. J. Hussain, J. Jeune, B. Louis, G. El-Kass, M. S. Ashraf, R. Reddy, M. Lesser, and G. P. Wolf-Klein, "Factors influencing older adults to complete advance directives," *Palliative Support Care*, Vol.8, pp.267-275, 2010.
- [13] T. Lynn, A. Curtis, and M. D. Lagerwey, "Association between Attitude Toward Death and Completion of Advance Directives," *Omega (United States)*, Vol.74, No.2, pp.193-211, 2016. DOI: 10.1177/0030222815598418
- [14] J. Park and J. A. Song, "Predictors of agreement with writing advance directives among older Korean adul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27, No.6, pp.574-582, 2016.
- [15] T. H. Kim and Y. S. Son, "A Study on Attitude of the Aged toward Death Centering on Family Environm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nc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4 No.1, pp.3-19, 1984.
- [16] S. W. Hong and S. M. Kim,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330-340, 2013.
- [17] J. S. Kim, "The Value in Quality of Life and Recognition and Preferences for Advance Directives by the Elderly's Ag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2, No.1, pp.1-23, 2012.

[18] S. H. Lee and K. E. Lee,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in Hospital Outpatients and Caregiver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0, No.3, pp.117-128, 2015.

[19] J. K. Choi, *Effects of Patient's Understand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the Will to Complete Advanced Directives*, Kyungpook University, Dsegu, Korean, 2013.

[20] D. M. Park, *The Effect of Older Adults' Social Engagement on Attitude toward Death*, Dong Eui University, 2009.

[21] Y. R. Seo,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of Elderl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eoul, 2017.

[22] S. Omondi, J. Weru, A. J. Shaikh, and G. Yonga, "Factors that influence advance directives completion amongst terminally ill patients at a tertiary hospital in Kenya," *BMC Palliat Care*, Vol.16, No.9, 2017. doi:10.1186/s12904-017-0186-z

강 문 희(Moonhee Gang)

정회원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 정신간호

김 연 옥(Yeon-Ok Kim)

정회원



- 2016년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2년 ~ 현재 : 서구노인복지관보건의료 사업 담당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노인간호

저 자 소 개

김 명 숙(Myung Sook Kim)

정회원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간호, 노인간호